

Shall we turn now in our Bibles to Ephesians, chapter 5.

에베소서 5장을 펴까요.

*Be ye therefore followers of God, as dear children*  
(5:1);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5:1)

Now, the *therefore* immediately points you back, back to the last verse of chapter 4 where we are exhorted to be kind one to another, tenderhearted, forgiving one another, even as God for Christ's sake hath forgiven us. Paul's topic here is God's forgiveness as our example of forgiveness. "Be ye followers of God," or follow the example that God has established for us in forgiveness.

“그러므로” 는 바로 앞에 나온것을 가리키며 4장의 마지막 절을 가리 킵니다. 그것은 서로 친절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는 우리에게 주시는 권고였습니다. “하나님을 본 받는 자가 되라” 또는 하나님이 용서에 대하여 이루워 놓으신 본을 받으십시오.

Really the Bible does have the keys to good mental health.

성경은 참으로 좋은 정신 건강의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A very important thing for mental health is a forgiving spirit. If you are holding bitterness or animosity in your heart towards someone else, that bitterness is going to do you a lot more harm than it is them. It can just eat at you.

정신 건강에 아주 중요한 것은 용서하는 정신입니다. 만일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 원한이나 증오심을 품고 있으면 그 원한은 그 사람들 보다 당신을 더 많이 해칩니다. 그것이 당신을 파괴할 것입니다.

The Bible constantly is emphasizing the importance of our forgiving and being forgiving. Just to have a forgiving spirit.

성경은 용서 하는것과 용서 받는 것의 중요성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When Jesus was giving to the disciples the model prayer, incorporated into that prayer was "and forgive us our trespasses as we forgive those who

trespass against us." Asking for forgiveness, but also acknowledging the fact that I have received forgiveness or I must myself be forgiving.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모범 기도를 가르쳐 주실때 그 기도에 넣은것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소서” 입니다. 죄의 용서를 구합니다. 그러나 또한 내가 용서를 받았는가 아니면 내 자신이 용서하고 있는가하는 사실도 인식해야 합니다.

Forgive us and help me to be forgiving as we forgive others. There was only one petition of that prayer that Jesus emphasized at the close of the prayer, and that was the petition on forgiveness, He said, "For if you will not forgive men their trespasses against you, neither will your Father forgive you your trespasses."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한 것 같이 나도 용서 하도록 도와 주세요. 예수님께서 기도에 강조하신 단 한가지 청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용서에 대한 청원 기도입니다. 주께서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고 말씀 하셨습니다.

Jesus taught so much on forgiveness, Peter one day felt he was getting the lesson and was looking for some extra strokes. He said, "Lord, how often should I forgive a brother the same offense? Seven times?" I am certain that Peter felt that he was really growing in grace in that he could conceive of forgiving a man the same offense seven times. Imagine his chagrin when Jesus answered him, "No, Peter. Seventy times seven." Four hundred and ninety?

예수께서 용서에 관하여 많이 가르치셨습니다. 어느 날 베드로가 그 교훈을 잘 배웠다고 생각하고 점수를 좀 딸려고 했습니다. 그는 물었습니다, “주님, 형제가 내게 같은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리이까? 일곱번 까지 하오리까?” 내가 확신하기로는 베드로가 참으로 은혜에서 자라서 한 사람이 같은 죄를 일곱번 범하는 것도 용서해 줄수 있다는 생각을 했을것입니다. 예수께서 “아니야, 베드로야, 일곱번 뿐 아니라 일흔번씩 일곱번이라도 할지니라” 라고 대답하셨을때 베드로의 원통함을 상상해보십시오. 사백 칠십번이나 하라구요?

The Lord, I am certain, was demonstrating to Peter that forgiveness is not a matter of mathematics. Before you get to the four hundred and ninety, you would have forgotten the count. And you would just go on forgiving.

내가 확신하기로는 주님이 베드로에게 보여 주신것은 용서는 계산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490 번까지 헤아리기도 전에 숫자를 잊어 버릴것 입니다. 그냥 계속해서 용서해주세요.

It isn't a matter of mathematics; it is a matter of the spirit. God wants us to have a forgiving spirit. Yes, you have been wronged. Yes, you have a right to be angry. Yes, you have a right to be upset over this whole situation. Go ahead, eat yourself up, or forgive and be freed from that.

용서는 숫자의 문제가 아니고 마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언짢을 때가 있습니다. 화 낼 권리가 있습니다. 예, 당신은 모든 상황을 언짢게 느낄 권리가 있습니다. 당신 자신이 그것에 파묻히든지 용서하고 풀든지 하십시오.

“Be ye kind one to another, tenderhearted, forgiving one another, even as God, for Christ's sake, hath forgiven us. Be ye therefore, followers of God, as dear children.” So you see how it ties to the previous verse in the previous chapter. God is the example for us in forgiveness; we are to be followers of God who has forgiven us.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것이 앞의 장에 있는 마지막 구절과 연결이 얼마나 잘되는지 보실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용서에서 우리의 본이십니다. 우리는 우리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을 본 받는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And walk in love (5:2),*

*사랑 가운데 행하라 (5:2)*

Now, as we've pointed out in the first three chapters of Ephesians, Paul has dealt with the spiritual blessings wherewith God has blessed us in Christ in heavenly places.

우리가 에베소서 첫 3장에서 지적했듯이 바울은 하나님이 하늘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영적 축복을 다루었습니다.

Having seated us together in Christ, made us heirs together with Him. And having spent three chapters telling you all that God has done for you, and all that God has promised to do for you, and all that God is planning to do for you, having thoroughly rehearsed the resources that God has made available to you, he finally starts to talk to you about your walk. Now unfortunately, we don't follow that same example in our preaching today. But we start immediately preaching to people how they ought to walk, how they ought to act, how they ought to respond.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앉히시고, 그와 함께 상속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하신 모든 것들, 당신을 위해 하시기로 약속하신 모든 것들, 하나님이 당신을 위하여 하시기로 계획하시는 모든 것들, 당신의 소용을 위해 철저히 준비해놓으신 자원들에 대하여 말하는데 석장을 소모 하였습니다. 드디어 그는 당신의 행함에 대하여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불행히도 우리는 오늘 설교하는 동일한

모범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당장 우리가 어떻게 행하며, 어떻게 행동하며 어떻게 반응을 보여야 할것을 사람들에게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But the Bible doesn't do that until it lays first the foundation of God's love, God's grace, God's goodness, God's blessings, God's provisions, and now walk in love, because you have been so loved of God, so blessed of God, so taught of God to love.

그러나 성경은 먼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 가운데 행함의 기초를 놓을때까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너무나 축복하시고, **사랑하도록 하나님에 대하여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

*Walk in love, as Christ also has loved us (5:2),*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같이 사랑가운데 행하라 (5:2)*

So forgiveness, God is the example. We are to forgive as God has forgiven us. Be ye followers of God. In walking in love, Jesus is our example, who loved us,

하나님은 용서의 모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용서하고 하나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본받아 사랑 가운데 행하십시오.

*and gave himself for us (5:2)*

*그리고 우리를 위해 자신을 주시고 (5:2)*

So that self-sacrificing love, that giving love. He has given Himself for us as

*an offering and a sacrifice to God for a sweetsmelling savor (5:2).*

그것은 자기 희생의 사랑이며 사랑을 주는것입니다. 그는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5:2)*

Now, in the beginning now to list some of the unloving things whereby men often relate to each other, it is interesting that he puts at the top of an unloving thing, fornication.

이제 시작부터 자주 사람들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사랑이 아닌 것들을 적습니다. 흥미있는 것은 사랑이 아닌 음행이 제일 먼저 기록되어 있습니다.

We see how Satan has so deceived and distorted things, because the world equates fornication with love. In fact, they use the term “let's make love” when they are referring to the act of fornication quite often, calling it love making. But here in the scripture it is the prime example of something that is lacking in love. That is, lacking in true love.

세상이 음행을 사랑과 동일시 하기때문에 사탄이 속이고 곡해하도록 만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실상, 사람들이 음행을 할때 그들이 쓰는 용어는 “우리 사랑하자” 라는 말입니다. 음행을 사랑하는것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여기 성경에서 그것은 사랑이이 결핍된 대표적인 예 입니다. 다시 말해서 참된 사랑이 결핍된 것입니다.

A person who in entices someone else into the act of fornication is not really considering the other person, but only considering themselves and their own desire for some kind of fulfillment, emotional, sexual or otherwise.

They are not really considering the other person that they are leading them into a damning sin. Into one of those works of the flesh which Paul tells us that they which do such things shall not inherit the kingdom of God. So it is a very unloving thing to lead a person into an action that is so destructive to that person's spiritual walk in life, which is total disobedience to the commands of God. So it is not really loving and considering the other person.

음행하도록 유혹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전혀 배려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욕망, 감정적, 성적, 또는 다르것을 만족시키기 위한것입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을 죄악으로 인도하는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육신의 일에 빠져드는데그이며 그러한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그러한 행동으로 이끄는것은 사랑의 행위가 아니며 그것은 그 사람의 생활에서 영적인 행함에 파괴적인 영향을 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완전히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참으로 사랑하는것이 아니며 다른 사람을 생각해 주는것도 아닙니다.

It is a very unloving act and it is only Satan's deception and lies that would cause a person to even think of that as an act of love. It is an act of lust. But true love is not really involved. If you really loved the person, you would be considerate of their conscience, of their feelings. You would not want to place them under that guilt that they would feel afterwards, that shame and all that they would experience as the result of the relationship.

그것은 사랑의 행위가 아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사랑의 행위라고 착각하게 하는 사탄의 속임수이며 거짓말입니다. 그것은 정욕의 행위일뿐 참 사랑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만일 당신이 그 사람을 참으로 사랑했다면 당신은 그들의 양심이나 감정을 고려했어야 할것입니다. 그들이 그 관계의 결과로 경험할 수치와 모든것들을 느끼는 죄책감에 빠지게 하기를 당신이 원치는 않을것입니다.

It is interesting that Paul would place that at the top of the list of an unloving act. Walk in love. The second is

바울은 사랑 없는 행위를 제일 먼저 말하니 흥미로운 일입니다. 사랑 가운데서 행하십시오. 두 번째는

*uncleanness* (5:3),

더러운 것 (5:3)

Which, of course, is a sexual uncleanness or impurity.

물론, 성적 불결함 또는 불결입니다.

*covetousness* (5:3),

탐욕 (5:3)

Of course, that is at the heart of unloving actions. Self-love, covetous, but that isn't a real love or consideration for others.

물론 사랑 없는 행위의 근원은 자기 사랑과 탐욕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참된 사랑이 아니며 남을 배려하는것도 아닙니다.

*let them not once be named among you* (5:3),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5:3)

You are the children of God. Walk in love, not in these unloving ways.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랑 가운데서 행하고 사랑이 아닌 방법으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Neither filthiness, nor [really] foolish talking, nor jesting, which are not convenient* (5:4):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5:4)

Really, he is referring here to dirty jokes. It should never, never be done by a child of God, the passing on of a dirty story, because what you are doing is planting filth in that other person's mind, filth that they will not be able to get rid of. It is tragic, but I can remember dirty jokes that were told me when I was just a little kid.

바울은 여기서 더러운 농담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결코 더러운 이야기를 전달해서는 안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다른 사람의 마음에 더러운 것을 심고 있으며 그들이 그것을 없앨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비극입니다. 그러나 내가 어린 소년이었을때 들은 더러운 농담을 아직도 기억할수 있습니다.

That filth was planted into my mind and I cannot get rid of it. It still lingers there. Oh, I don't think on it all of the time, thank God, but you know how the dumb mind works. Every once in a while one of those dirty little ditties that I learned as a kid, some kind of a sight, sound, word will trigger a DNA molecule and it will pop that thing out of the file, flash it across my brain. And I think, "Oh God help me, that filth is still there."

그 더러운 농담은 내 마음에 심어졌고 지워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거기서 좀처럼 사라지지 않습니다. 나는 그것을 언제나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감사 합니다. 그러나 마음이 어떻게 변하는지 아시죠. 가끔 가다가 내가 어릴때 들었던 그 더러운 생각이 어떤 모습이나 소리나 말을 통해서 DNA 분자를 건드릴때 파일에서 튀어나와서 나의 뇌를 통하여 비칩니다. 그러면 나는 생각하기를 "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 더러운 생각이 아직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But what a shame to plant filth in someone else's mind like that. Filth that they can't get rid of, permanent stains. That is not loving, not loving at all. Rather than that kind of stuff,

그러나 다른 사람의 마음에 그러한 더러운 것을 심어주는 것은 정말 너무나 짓입니다. 그 더러움은 지워버릴 수도 없는 영원한 오점입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런것을 하는것 보다 차라리 전혀 사랑하지 않는것이 낫습니다.

*we should be giving thanks (5:4),*

*감사하는 말을 하라 (5:4)*

Plant stuff in their minds that will edify, that will bless, that will be good, that will build them up.

그들의 마음에 덕을 쌓고, 축복 받고, 좋은 것들을 심어주세요. 그것들이 저희들을 세울것입니다.

*For this you know (5:5),*

*너희도 이것을 정녕히 알거니와 (5:5)*

Now I hope you know it.

여러분들이 이젠 알기를 바랍니다.

*no whoremonger, nor unclean person [sexually impure], nor covetous man, who is an idolater, has any inheritance in the kingdom of Christ and of God (5:5).*

음행 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자는 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Paul says, "Now you know this." The tragedy is that a lot of people don't know that. They think that they can get by with these things. They think that somehow God will smile at these things or God will excuse these things or pass over these things. But God is a righteous judge, and everything will be called into account that is not covered by the blood of Jesus Christ.

바울은 “너희도 이것을 알거니와” 라고 말합니다. 비극은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모르는것입니다. 그들은 이러한 것들을 쉽게 지나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이러한 일에 미소 지으시거나 하나님이 용서하시거나 그냥 지나쳐 버리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관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이지 않은 모든것을 회계하도록 부르실것입니다.

*Let no man deceive you (5:6)*

누구든지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5:6)

And unfortunately, so many men have deceived in these areas, but let them not

불행히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들로 속이고 있으나 그들로 하여금

*deceive you with vain words (5:6):*

너희를 헛된 말로 속이지 못하게 하라 (5:6)

As they get into their speculations and as they get into their rationale and into their philosophies,

그들 자신의 억측에 빠지고 그들 자신의 합리적인 생각에 빠지며 그들 자신의 철학에 빠지게 될때,

*for because of these things comes the wrath of God upon the children of disobedience (5:6).*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5:6).



In the early church they had a heresy that was known as Gnosticism. According to the Gnostic heresy, basically everything that was material was evil. The material world was not really created by God. God in the beginning sent forth emanations, and one of the emanations got so far from God that it wasn't related to God anymore, and this emanation created the material universe and thus, the whole material universe is just given over to evil. It's just evil and you can't do anything about it. Only the spiritual is pure.

초대교회에 영지주의 라고 알려진 이단이 있었습니다. 영지주의에 의하면 기본적으로 모든 물질은 악하다는 것입니다. 물질 세계는 실제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여러가지 생각을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과 너무나 거리가 먼것이라 더 이상 하나님과 관련지을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 생각이 물질세계를 창조했고 우주의 모든 물질은 악에게 넘겨 주었습니다. 그것은 악할 뿐이고 그에 대하여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오직 영적인 것만이 순수합니다.

Therefore, they taught that Jesus was not in a real body of flesh, He was actually a phantom, just an appearance. When He would walk along the beach, there wouldn't be any footprints. They created all of these fanciful stories to deny that Jesus had come in a body, and so that is why John, to counteract this Gnostic heresy, said, "If any man denies that Jesus Christ came in the flesh, he is the antichrist."

그러므로, 그들은 예수님은 실제로 육신의 실체에 계시는것이 아니고, 실제로 유령이었으며 겉으로 보이기만할 뿐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가 해변을 거닌다면 발자국이 남지않을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육신으로 오신것을 부인하기 위하여 이러한 가공적인 이야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영주주의를 대항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것을 부인하면 그는 적그리스도라” 고 말했습니다.

Now, going along with this teaching that the material is all evil, they said, "Inasmuch as the material is given over to evil, it doesn't matter what you do with your body because it is all wiped out anyhow. It is just all evil.

이 가르침대로 하면 물질은 다 악한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질이 악에 넘으셨으니 당신의 몸으로 어떤 짓을 하든지 상관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어차피 없어질 것이니까. 그것은 다 악할 뿐입니다.

It is part of the material things, which is totally evil, so it doesn't count. God doesn't really count. It is what is in your spirit that counts. So you can go ahead and commit fornication and go ahead and do all of these things. It really doesn't matter, because you see, that is all a part of the material body and God is so disassociated with the material world that anything done in the material world doesn't really count in the spiritual realm." That was the teaching of the Gnostic's, and so Paul was saying, "Don't let any man deceive you with vain words."

몸은 물질의 일부이므로 완전히 악한것이고 그래서 상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상관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의 영에 속한것입니다. 그러니 가서 음행도 하고 이 모든일을 해도 괜찮습니다. 실제로 상관 없습니다. 보시다시피 그것은 물질로 된 몸의 일부이고 하나님은 물질 세계와 아무 상관 없습니다. 이것이 영지주의의 가르침이었고 그래서 바울은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고 말했습니다.

If you get into the Gnostic heresy there was a lot of rationale and plausibilities and all. But they were deceiving people with their vain words and telling them you can do what you want in your body, it really doesn't matter. It isn't wrong because the body is material and it is all going to be done away with. It is what is spiritual that only counts with God.

만일 당신이 영지주의에 들어가면 정당화 하는것이 많고 그럴듯한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헛된 말로 사람들을 속입니다. 그들의 육신에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을 해도 상관 없다고 합니다. 몸이 물질이라고 해서 틀린것이 아니라 모미 물질이니 그것은 소용이 없게 된다고 하기때문에 틀린것입니다. 영적인 것만 하나님이 상관하신다고 합니다.

*Don't be partakers with them (5:7).*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참여하는 자 되지 말며 (5:7).*

Actually, he said, "Don't you realize that these are the very things that are going to bring the wrath of God on man?" These are the things for which God is going to judge the world. If you are guilty of doing these things then you will be judged with a guilty world.

바울은 “바로 이것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초래하는 것임을 깨닫지 못하느냐?” 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것들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이러한 죄악을 행하고 있다면 당신은 이 죄악 세상과 함께 심판을 받을것입니다.

*You were one time in darkness, but now you are light in the Lord (5:8);*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5:8);*

Actually, “you were one time darkness,” not, “in darkness,” you were darkness. Now you are not in the light, you are the light. One time your life was darkness, now your life is light if Christ is dwelling in you.

실상 “당신은 한 때 어두움이었습니다,” “어두움 안” 이 아니라 어두움 그 자체였습니다. 이제 당신은 어두움 안에 있지 않고 당신이 빛입니다. 한때 당신은 어두움이었으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당신 안에 내주하시면 당신의 삶은 빛입니다.

*(For the fruit of the Spirit is in all goodness and righteousness and truth;) Proving what is acceptable unto the Lord. And have no fellowship with the unfruitful works of darkness, but rather reprove them (5:9-11).*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5:9-11).

When Paul was writing to the Corinthians, he said, "What fellowship has light with darkness?" Now think about that for a moment. Light and darkness are mutually exclusive. They cannot coexist.

When you turn on a light the darkness goes. But they don't coexist. They are not one. They are separate, mutually exclusive entities. So spiritually you cannot walk in darkness and walk in light.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쓸 때 그는 말하기를 “빛이 어둠과 어찌 같이 하겠느냐?” 라고 말했습니다. 잠깐 그것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빛과 어둠은 상호 배타적이라 서로 공존 할 수 없습니다.

불을 켤 때 어둠은 물러나며 공존할 수 없습니다. 빛과 어둠은 하나가 아니며 분리되어 있고, 상호 배타적인 실체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영적으로 어둠과 빛 가운데 행할수 없습니다.

If a man says that he has fellowship with God, who is light, and he is walking in darkness, he lies; he is not telling the truth. But if we walk in the light as He is in the light then we do have fellowship with God as the blood of Jesus Christ His Son is continually cleansing us from all sin. So again, don't be deceived. If you are walking in darkness then you cannot have fellowship with God. So have no fellowship with the unfruitful works of darkness, but rather reprove them.

만약 어떤 사람이 빛이신 하나님과 사귀어 있다고 하면서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그 사람은 거짓말 하고 진리를 말하지 않는것입니다. 만약 저가 빛 가운데 계신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어 있으면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케 하실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속지 마십시오. 만일 당신이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하나님과 사귀어 가질수 없습니다. 그래서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과 사귀지 말고 오히려 그것들을 책망하십시오.

Now, we are to take more than just a passive attitude towards darkness. When someone comes and starts to tell a dirty story and it is obvious from the look in their eye and the sinister smile that it is going to be one of the dirty ones, stop them, reprove them, don't just listen and then smile politely and chuckle. Say, "That is filthy." There are some men whose minds are like racehorses; they run best on a dirt track. Don't let them pour out their filth on you.

우리는 어두움에 오직 수동적인 태도 보다 더 적극적이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당신에게 다가와 더러운 얘기를 시작할때 그것이 더러운 이야기일것을 그들의 눈이나 불길한 미소를 짓는것을 보고 분명히 알수 있습니다. 그들을 중단 시키고 책망하며 그냥 듣기만 하여 정중하게 미소 지으며 낄낄 웃지 마십시오. “그것은 더럽소” 라고 말하세요. 어떤 사람들의 마음은 경주하는 말 같아서 비 포장도로에 잘 달립니다. 그들의 더러운 것을 당신에게 쏟아 붓지 못하게 하십시오.

Don't have any fellowship with the unfruitful works of darkness, reprove them, speak up, tell them that that is wrong, you don't appreciate it. That way you will keep them from coming back with more filth later.

어둠의 열매 없는 것과 사귀지 말고, 꾸짖으며, 할말을 해서 틀린 것과 당신은 좋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더 이상 더러운 얘기를 하러 오지 않도록 막는것입니다.

*For it is a shame even to speak of those things which are done of them in secret (5:12).*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을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5:12).*

A lot of times they want to come along and tell you the weekend that they just had and all of their exploits and all, and it is a shame to talk about those things.

많은 경우 그들이 찾아 와서 그들이 주말에 있었던 온 갖 일들을 얘기하는데, 그것들은 말하기도 창피한 것들입니다.

*But all things that are reprov'd are made manifest by the light: for whatsoever doth make manifest is light (5:13).*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나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5:13).

Jesus said, "I didn't come into the world to condemn the world, but that the world through Me might be saved. He that believeth is not condemned but he that believeth not is condemned already, inasmuch as he has not believed on the only begotten Son of God.

And this is the condemnation, light came into the world, but they would not come to the light because their deeds were evil. And if they would come into the light their deeds would be manifested" (John 3:17-20). So they will not come to Christ because of their evil deeds. Christ is the light and they don't want to come into that light because it will reveal the truth about them. They love to stay in the darkness. They stay away from the light.

예수께서 “내가 세상에 온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나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함이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를 믿지 아니 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하므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함이라” (요 3:17-20). 그들의 행위가 악하므로 그들은 그리스도에게 나아 오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는 빛이시며 그빛이 사람들은 빛에 나오기를 원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빛이 그들에 관한 사실을 다 들춰낼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어두움에 남아 있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빛에서 멀어지기를 원합니다.

*Wherefore he said, Awake thou that sleepest, arise from the dead, and Christ will give you light (5:14).*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네게 비취시리라 하셨느니라. 어둠에서 잠자고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부르짖습니다 (5:14).

To those who are sleeping in darkness, the call of the gospel. Arise from that death, that spiritual death, and Jesus Christ will give you spiritual life.

어두움에서 잠자는 자에게는 복음의 부르심입니다. 영적인 죽음에서 일어나십시오. 그리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적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See then that you walk circumspectly, not as fools, but as wise (5:15),*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5:15),

So here we are told walk in love, in verse 8, walk as children of light, and here, walk circumspectly.

여기 8절에서 사랑으로 빛의 자녀같이 행하라고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자세히 주의하여 행하라고 합니다.

*Redeeming the time, because the days are evil (5:16).*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5:16).

How much time is wasted even by the most careful planner. In a sense, I consider all time that is not spent in spiritual development of some kind is really, in a sense, wasted time. I am not saying that I feel that a person should never do anything for just recreational purposes, I think you have to. But I think that even our recreation can be centered around a spiritual base. I think that God gave us all things to really enjoy. I think that God gave us the surf to enjoy.

아주 조심해서 계획을 하는 사람조차도 얼마나 시간을 낭비하는지 모릅니다. 어떤 면에서는 정말 영적 개발에 보내지 않은 시간은 실제로 낭비된 시간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내가 하는 말은 개인이 오락을 위한 시간을 전혀 가지지 말라는것이 아닙니다. 물론 오락 시간을 가져야하죠. 그러나 우리의 오락 시간마저도 영적인 기초를 두고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즐길수 있는 모든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딪치는파도를 즐기도록 주셨습니다.

I believe that God gave us the mountains to enjoy, the rivers, the streams. How can you have dominion over the fish of the sea if you don't get a hook and go after them? But you know, when I am engaged in these recreational activities, when I am sitting out there waiting for a set to come, my heart is in the things of the Spirit.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즐기도록 산과 강과 시냇 물도 주셨다고 나는 믿습니다. 당신이 낚시 바늘도 없고 낚아 가지도아니하면 어떻게 바다의 고기를 다스리 겠습니까? 그러나 아시다시피 내가 이러한 오락 활동을 할때 내가 고기 떼들이 몰려 오기를 기다리고 있을 때 내 마음은 영적인 일에 가 있습니다.

I look at the ocean, I look at the surf, I look at the beauty of God's creation and I am just there in fellowship with the Lord. In fact, I think that I enjoy it probably a lot more than a lot of those people because of the fact that I do have such neat times of fellowship with the Lord while I am there.

바다와 파도가 부딪치는 것을 볼때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움을 보며 바로 그곳에서 주님과 교제합니다. 사실은 내가 그곳에 있는 동안 주님과 좋은 교제 하는 시간을 가지기 때문에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보다 더 즐긴다고 생각합니다.

I like what Jim Elliot said concerning his going out for the wrestling team at Wheaton College when he won the national AAU championship in his weight division. He wrote home to his parents in Washington and said, "You will probably hear of certain honors that I have received recently in wrestling, the National AAU Championship, but I want you to know that it wasn't for this purpose that I went out for wrestling. My purpose in wrestling was to develop a stronger more coordinated body that I might offer to God for Him to use in whatever way He might see fit." The motive behind physical fitness. Do I want to walk down the street and have everybody say, "Wow, look at that build." Or am I seeking to give to God a more qualified instrument for Him to do His work through? Makes a big difference.

나는 짐 엘리엇(Jim Elliot) 이 휘튼 대학 (Wheaton College) 레슬링 팀에 나가 자기의 체중 부문 에서 전국 AAU 선수권을 획득한것에 관하여 이야기 했던것을 좋아합니다. 그는 워싱턴에 살고 있는 부모님들에게 편지를 써서 "내가 최근에 레슬링에서 우승하여 전국 AAU 선수권을 얻었다는 소식을 듣게 될것입니다. 그러나 아시기를

바라는 것은 내가 우승하려는 목적으로 나간 것이 아닙니다. 레스링을 하는 나의 목적은 내 몸을 조화를 이룬 튼튼한 몸을 개발 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방법으로 사용 하시도록 드리기를 위한 것 입니다.” 그것이 신체를 단련하는 목적이었습니다. 내가 거리를 걸으면 모두 “와, 저 체구 좀 보렴” 이라는 말을 듣기 위해서 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더 잘 갖추어진 도구로 하나님에게 드리기를 위한 것 입니까? 격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Redeeming the time, because the days are evil (5:16).*

we waste so much.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5:16).*

우리는 시간을 너무 많이 낭비합니다.

*Wherefore be not unwise, but understanding what the will of the Lord is (5:17).*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5:17)*

So many people are confused as far as God's will for their lives. The purpose and the plan of God for their life.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생애에 관한 하나님의 뜻을 혼동합니다. 그것은 그들의 삶을 위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입니다.

They go on just sort of continuing wasting time. Still doing their own things, never really seeking God, never really searching for the will of God for their lives. God, why did You put me here? What do You have in mind for me? What work is it, Lord, that You want me to accomplish for You? Why have You placed me on this planet? God placed each of us here with a purpose.

그들은 시간 낭비하기를 계속합니다. 아직까지도 자기 뜻대로 하면서 실제로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그들의 삶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곳에 두셨습니까? 나를 위해 가지고 계신 생각이 무엇입니까? 주님, 제가 이룩하기를 원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나를 이 유성위에 두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위한 목적을 가지고 여기에 두셨습니다.

Paul the apostle in writing to the Philippians said, "I have not yet apprehended that for which I was apprehended by Jesus Christ." In other words, when the Lord stopped me on the road to Damascus, He had a definite plan for my life. I have not yet accomplished that for which God has planned for me. But I am on my way. I forget those things which are behind and I am pressing towards those things which are before. Reaching for, pressing towards the mark.

Now that should be the story of every one of us. Pressing towards the purpose of God and fulfillment of that purpose of God and plan of God for my life. Redeeming the time, knowing what God wants me to do and being about my Father's business.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바 된것을 아직 잡지 못하였노라.” 바꾸어 말하면, 주님이 나를 다메섹 도상에서 멈추게 하셨을때 그분은 내 생애를 위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계획하신것을 아직 성취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진행 중입니다. 나는 뒤에 있는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것을 잡으려고 풋대를 향하여 쫓아가노라.

이제 그것은 우리 모두의 이야기 이어야 합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목적의 달성과 하나님의 계획을 향하여 달려가야합니다. 시간을 아끼며 하나님께서 내가 하기를 원하시는 일을 알고 아버지의 일에 관여해야합니다.

*Be not drunk with wine, in which is excess; but be filled with the Spirit (5:18);*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5:18)

And in the Greek it is present perfect tense, which would indicate a continual filling of the Spirit. “Be ye being filled,” but that isn't good English grammar. But that is Greek. We don't have a present perfect tense in English as such.

Now these are two interesting things that he would couple together, and relate. Here is a man staggering down the straight, he has had too much wine, and Paul would equate that to a man being filled with the Spirit. Now they seem like opposite things.

희랍어로 성령 충만은 현재 완료형이며 계속하여 성령으로 채우는 것을 가리킵니다. “당신이 채워지다” 는 영어로는 썩 좋은 문법이 아닙니다마는 희랍어는 좋습니다. 영어에는 그런 현재 완료형의 시제가 없습니다.

여기 서로 연관 지을 수 있는 재미있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남자가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바른 길을 비틀 거리면서 갑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사람을 성령 충만한 사람과 같이 보았습니다. 그두가지가 정 반대로 보입니다.

*Be not drunk with wine, where in is excess; but be filled with the Spirit (5:18);*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5:18)



They are closer than a person would expect on the surface. What is a person searching for who turns to wine? The man who turns to alcohol, what is he seeking? What is he searching for? There is an emptiness deep inside.

I am trying to find something that will fill that void in my life. I am reaching out for something that will satisfy; I am looking, I am searching. Some people search in alcohol to find a peace, a contentment, a relaxation or whatever.

외부에서 기대 하는것보다 훨씬 더 가깝습니다. 술로 돌아 가는 사람이 무엇을 찾습니까? 알코홀로 돌아 가는 사람이 무엇을 추구합니까? 그가 찾는 것이 무엇 입니까? 마음속 깊은 곳에는 허무한것 밖에 없습니다.

나는 내 생활에서 공허감을 메울 수 있는것을 찾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나는 만족시켜 줄만한 것을 찾고 있습니다. 보면서 찾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알코홀에서 평안이나 만족이나 또는 위안이나 무엇이든지 찾습니다.

What does a person experience who is filled with the Spirit? A peace, a relaxation, a contentment, a fulfillment. The one man is looking in the wrong place; he is looking in a place where he will never discover it. The other man has come to the answer, being filled with the Spirit, that void, spiritual void in my life is now complete and full and I am no longer searching and seeking after something to satisfy.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무엇을 경험할까요? 평안, 위안, 만족, 성취감 일것입니다. 한 사람은 절대 찾을 수 없는 곳에서 평화를 찾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성령 충만으로 응답을 받아야하며 영적으로 공허하든 나의 삶이 완전히 충만하게되어 더 이상 만족을 얻을 다른 어떤것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I am satisfied through my relationship with God in the Spirit. Rather than being entirely separate things, there is a real tie-in behind the injunction, "be not drunk with wine wherein is excess, but be ye continually filled with the Spirit."

나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 만족합니다. 모든것에서 분리된 상태라기 보다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라는 명령의 배후에 있는 진정한 연결입니다.

*Speaking to yourselves in psalms and hymns and spiritual songs, singing and making melody in your heart to the Lord (5:19);*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5:19)*

When you sing for recreation, what do you sing about? When you are just unconsciously sort of humming a tune, what is it all about? I love to observe my grandchildren, when they are not aware even that Grandpa is watching and listening. I like to watch them at play. I like to watch their inventiveness and the interest that they take in different things.

당신이 오락 타령을 할때 무엇에 대하여 노래를 합니까? 당신이 무의식 중에 콧노래를 할때 그것이 무엇에 대하여 말합니까? 할아버지가 보고, 듣고 있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놀고 있는 손자, 손녀들을 관찰하는 것이 즐겁습니다. 나는 그들이 창의력을 발휘하는것을 보기를 좋아하며 다른 것들에서 그들이 갖는 재미있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Oh, how I love it as they are going around the yard, riding the tricycle or engaged in some activity and they are singing about Jesus, singing about the Lord. I think, "Oh, how beautiful, how beautiful."

That should be true of all of us. Singing psalms, hymns, spiritual songs, making melody in your heart to the Lord, that it just be a part of the subconscious. I do it when I am not even aware of doing it. That will be the case if that is the kind of music you are listening to, but if you are listening to some of these other stations all of the time, who knows what you will be whistling about.

나는 그 아이들이 세발 자전거를 타고 마당을 맴돌거나 다른 놀이를 하면서 그들이 예수님, 주님에 관하여 노래를 부르는 것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오, 얼마나 아름다운가, 참 아름다워"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모두 그래야 합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화답하며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는 것이 우리의 잠재의식의 일부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아무런 의식없이 무슨 일을 할때가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듣고 있는 음악이 그런 종류라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항상 다른 방송국을 듣는 다면 당신이 무엇을 훗바람으로 불고있는지 모릅니다.

*Giving thanks always for all things unto God and the Father in the name of our Lord Jesus Christ (5:20);*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며 (5:20);*

Giving thanks, always for all things. That's impossible to do unless I realize that all things are working together for good to those who love God. If I don't have that confidence, then I can't give thanks for all things.

I can't give thanks for all things if I don't fully believe that God loves me supremely, and that God is wiser than I. So that those things that God has allowed to come into my life, He has a wise plan and purpose, motivated by love, which caused Him to allow them to come to me. Thus, I can give thanks for all things, but if I don't realize that, I can't.

범사에 감사하라.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알지 못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내게 그러한 확신이 없으면 범사에 감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최고로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보다 지혜로우시다는 것을 완전히 믿지 않으면 범사에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생활에 일어나도록 허락하신 일들은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계시며 하나님의 사랑이 동기가 되어 그러한 일들이 나에게 일어 나도록 허락하시게 된 것입니다. 이리하여 내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것을 모르면 범사에 감사할 수 없습니다.

Because some things that happen to me on the surface look to be so adverse and so horrible that I'm prone to really cry out to God against these things. But if I know that God is in control of my life, that nothing can happen to me except the Father allow it to happen and that the Father loves me supremely so that all things that happen, happen for His purpose because He loves me, I love Him, and He has called me according to His purposes, then I can give thanks even for those things that I do not understand yet what the purpose is. That takes faith.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겉으로 보기에 너무 불행하고 끔찍하여 이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 원망하게 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삶을 지배하신다는 것을 알면, 즉 아버지가 허락하시는 것외에는 일어나지 않고, 아버지가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모든 일이 생기고, 그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의 목적을 위하여 일어나는 것임을 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의 목적에 따라 나를 부르셨으니 아직 나는 그 목적을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Submitting yourselves one to another in the fear of God (5:21).*

*그리스도는 경의하며 피차 복종이라 (5:21)*

He has been talking about a lot of fleshly characteristics, covetousness and these other things. The characteristic of the flesh is actually selfishness or self-centeredness from which comes the covetousness and all these other things, the greed. All of it comes and stems from my self-centeredness and my selfishness. I want my way; I want people to yield to my desires. I want people to play by my rules.

I want them to yield to me. But here we are told that we are to submit one to another, yielding to each other. Now, the insistence on our own way is what brings all of the strife and all of the problems.

그는 육신적인 특징, 즉 탐욕과 이러한 다른것들에 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특성은 탐욕에서 오는 이기주의와 자기 중심 과 그외의 여러가지와 욕심입니다. 그것들 전부가 다 자기 중심과 이기주의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나의 방식을 원하고, 사람들도 내 원하는 대로 양보하기를 원하고, 내 규칙에 따르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양보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는 피차 복종하고 서로 양보하라고 합니다. 우리의 방법을 주장하면 여러가지 투쟁과 문제를 일으킵니다.

I remember when I was a kid there used to be along the highway these Burma shape signs.

I am not going to ask you how many remember that because I wouldn't date you back to my tintype, flash powder days. I remember as a kid reading one of those signs along the road between Los Angeles and Ventura up in the area of Thousand Oaks, when Gobles Lion Farm used to be out that way and that old dirigible they were building along side of the road.

내가 어렸을 때 도로를 따라 버마 모양의 표시가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철판 사진과 섬광분을 쓰던 나의 시대의 옛날로 돌아가고 싶지 않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기억하고 있는지는 묻지 않겠습니다. 내가 어릴때 Thousand Oaks 지역에서 Los Angeles 와 ventura 사이에 있는 도로를 따라가며 그러한 표지판을 읽은 기억이 납니다. Globes Lion Farm 이 저쪽 밖에 있었고 그들이 도로를 따라가며 그들이 짓고 있던 오래된 비행선이 그곳에 있었을 때입니다.

The sign said, "Famous last words, of lights that shine, if he doesn't dim his, I won't dim mine." I won't yield first, I won't give in; you have got to yield to me. That is the basis of so much striving and so much fighting. How much strife could be avoided if we would just submit to one another in love; yield the point.

표지판에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비치는 빛에 대한 유명한 마지막 말은 만일 그가 그의 빛을 어둡게 하지 않으면 나도 내 빛을 어둡게 하지않겠다.” 나는 먼저 양보도 하지않고 나도 포기 하지 않겠으니 당신이 내게 양보해야되요. 그것이 바로 투쟁과 싸움의 근원입니다. 우리가 사랑 안에서 서로 복종하여 양보 하면 얼마나 많은 투쟁을 피할 수 있을 텐데 말이죠.

*Wives, submit yourselves unto your own husbands, as unto the Lord. For the husband is the head of the wife (5:22-23),*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5:22-23)

The word *head* meaning *authority* there.

머리라는 단어는 권위를 의미합니다.

*even as Christ is [the authority or] the head of the church: and he is the savior of the body. Therefore as the church is subject unto Christ, so let the wives be subject to their own husbands in every thing (5:23-24).*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하시니라 (3:23-24).

This is the one rule for marriage that God has given to the wife, only one. It should be simple enough for her to keep the one rule. Why would you suppose that God would make such a rule? Because God understands men. God knows that in man there is that male macho image. That somehow a man needs to feel that he is in control, that he is able, that he can handle the situation, that he is boss. I mean, that is just a part of the male ego. God, understanding the male ego and man's needs, gave to the wife the one rule by which her husband can feel that he is really the man of the house and in control and thus be very compatible and loving towards her.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내들에게 주시는 결혼을 위한 단 한가지의 규칙입니다. 그 한가지 규칙은 지키기에 너무나 간단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런 규칙을 만드셨는지 궁금하죠? 하나님은 남자에게는 남자라는 자존심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남자는 자기가 지배하고 있다는 것과, 능력이 있다는 것과, 상황을 처리할수 있다는 것과, 자기가 상관임을 알아야합니다. 그것이 남자의 자존심의 일부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남자의 자존심을 아시고, 그의 필요한 것을 아시며 그가 그 집의 남자라는 것을 느끼고 아내와 서로 용납 하며 사랑하도록 만드셨습니다.

So he gave the women one simple rule, which, if she would follow, would make her husband a very responsible, loving person, easy to get along with. God gave one rule to the husbands, just one. God knows we are prone to forget, so just one rule for each.

하나님은 여자에게 단 한가지 간단한 규칙을 주셨고 만일 아내가 그 규칙을 따르면 그녀의 남편을 책임감 있고 사랑하는 남편이 되어 같이 지낼수 있도록 만드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남편에게도 간단한 단 한가지 규칙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 잊어버린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 각자에게 규칙을 하나씩만 주셨습니다.

*Husbands, love your wives, even as Christ loved the church, and gave himself for it (5:25);*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5:25);

Now, why would God command the husbands to love their wives so totally and supremely? Because God understands women. God understands the needs in women, and He understands that one of the greatest needs that a woman has is to feel the security that she is loved supremely by her husband.

왜 하나님이 남편들에게 아내 사랑하기를 완전히 최고로 하게 했을까요?  
하나님은 여자들을 이해하십니다. 여자들에게 제일 필요한 것도 이해하시며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것은 남편에게 지극한 사랑을 받음으로 오는 안정감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입니다.

That there is no one else that can attract his eye, or attract his attention, that she is queen, and that she is loved supremely. She needs that. So God commanded the husbands to fulfill that need in the woman so that she could feel the security of her husband's love, knowing I am number one in his life.

그 어느 누구도 남편의 눈을 끌거나 그의 관심을 끌수 없고, 그녀가 여왕 이고, 지극한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이 아내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자의 필요를 충족시켜줘 그녀가 남편의 사랑을 받아 안심하고 그녀가 남편의 인생에서 제일이라는 것을 알게 하도록 하라고 남편들에게 명령했습니다.

All marital problems stem out of the disobedience of these two rules. There are only two rules for a happy marriage; one for the husband, one for the wife. But marriages get in trouble because these rules are broken, and when they are broken they begin to compound. When the husband fails to show his wife that kind of love that Christ had for the church, and she begins to feel insecure, and, "I don't know if he really loves me or not," she then feels the necessity of beginning to protect herself, because, "I don't know if he is going to protect me or not."

모든 결혼의 문제는 이 두 가지 규칙을 불순종함으로써 생깁니다. 행복한 결혼 생활에는 오직 두 가지 규칙뿐입니다. 하나는 남편이 지켜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아내가 지켜야 할 규칙입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규칙을 지키지 않으므로 인해 결혼에 문제가 생기고 그때 문제는 더욱 복잡하게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같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지 않을 때, 아내는 불안해지기 시작하고, "그가 나를 사랑하는거가 아닌가 모르겠어." 그때부터 아내는 스스로 자신을 보호해야만 하는 필요성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가 날 보호해주려고 하는지 않는지 모르겠어" 하면서 의심하게 됩니다.

She begins to challenge the decisions that he makes. "Are you sure you are doing the right thing?" But as she begins to challenge the decisions that he makes, that upsets him because that means he is not the boss and supreme. "You ought to know..." And so as she begins to challenge his decision-making processes, he begins to feel that he is being challenged and, "I must now show that I am boss by becoming tough and hard and cold and unresponsive." As he becomes tough and unresponsive, she gets all the more insecure, so she challenges him all the more. You know, "I don't know if this character really loves me or not.

그녀는 그의 결정에 도전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하는것이 옳다고 확신해요?” 그러나 아내가 남편의 결정에 도전할때 남편은 자신이 가장으로 대우를 안해 준다는 느낌을 주어 화를 내게 만듭니다. “당신은 알아야 할것이 있어...” 하면서 그의 결정 과정에 도전하기 시작하고 그는 아내에게 도전 받고 있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하면서 “이제 내가 거칠어지고 쌀쌀해지며 대꾸도 하지 않아서 내가 가장임을 보여줘야지.” 거칠고 대꾸도 하지않음에 따라 그녀는 훨씬 더 불안해지고 그래서 더 의의를 제기하게 됩니다. “이 인간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지 마는지 모르겠어.

I don't think what he is planning to do is that smart. If we lose everything he is probably going to walk out himself, because I am not really assured that he really loves me,” and so she is challenging, but this challenging has a reverse affect upon him, causing him to become cold and aloof and, “I will show you I am boss.” So the marriage is torn apart.

On the other hand, as the wife is submitting unto him and to his decisions, “Honey, I will just leave that with you, you are the one that takes care of that. I am just trusting you.” He gets the feeling, “Oh, this precious little doll. I don't know if I am doing right or not, but oh boy, she trusts me and all right.”

나는 그가 계획하고 있는 것이 현명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잃는다면 아마 그는 스스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가 정말 날 사랑하는지 확신이 없어.” 그래서 그녀는 도전해 보지만 이 도전은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그를 더 쌀쌀하고 더 멀어지게 하는 원인이 되어 “내가 가장임을 네게 보여주마” 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결혼 생활은 파산이 됩니다.

반대로 아내가 남편과 그의 결정에 따를때, “여보, 당신에게 맡기니 알아서 처리하세요. 당신만 믿어요” 하면 남편은 “오, 이 사랑스러운 귀여운 인형, 내가 잘 하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나를 믿어주니 잘 될거야” 하는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And he begins to feel that, “Oh, you are a sweetheart, come here, Honey.” And he hugs her and, “You are just a doll, and I love you, Angel.” And he feels the freedom of expressing and showing his love to her. The more he expresses and shows that love to her, the more secure she feels. She doesn't feel that she has to challenge his decisions. “That was a dumb move, we will lose everything, but I still have him and he loves me, and after all, we can get by.

We have love.” She feels that security of love and thus she feels the freedom of submitting to him. And because she does submit, he feels that total freedom of expressing that love that he has for her. And it just gets gooder and gooder as we are following the rules.

그리고 그는 “오, 당신은 사랑스러워. 여보, 이리 오세요” 하는 느낌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남편이 아내를 안아주면서 “당신은 인형 같아. 천사, 사랑해요” 라고 사랑하는 감정을 마음껏 표현합니다. 남편이 사랑을 많이 표현하면 할수록 아내는

더 안정감을 갖게되고 그의 결정에 도전할 마음도 없게 됩니다. “그건 바보 같은 짓이었었고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릴것이야 그러나 나에게서는 아직 그가 있고 그는 나를 사랑하니 결국 우리는 잘 이겨낼 수 있어. 우린 서로 사랑해.” 아내는 그의 사랑의 안정감을 느끼고 그에게 복종 하고자하는 마음을 느낍니다. 그리고 아내가 복종하기 때문에 그가 아내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자유롭게 표현할수 있다고 느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규칙을 따를때 그 관계는 더욱 더 좋아집니다.

But you see it has a way of compounding. You start going one way, and it starts building up to drive you farther and farther apart. And so if you find yourself way out here in your marriage, you know, where every decision is challenged, “Why are you wearing that shirt this morning? Are you sure you want to wear that tie? If I was you I would wear a different pair of shoes.” You know, you may even agree with what he wants to do, but still you are going to challenge it. “I think I will take you out for dinner tonight, Honey.” “Oh, I don't know if I want to go for dinner or not.” You challenge it, don't let him get by making a decision.

그러나 화해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것을 아실것입니다. 당신이 한 길로 가기 시작하면 그것이 쌓이기 시작하고 사이는 점점 더 멀어집니다. 당신의 결혼에서 당신 자신이 여기까지 왔다면, 당신이 아시디시피 모든 결정에 관습을 합니다. “왜 오늘 아침에 이런 넥타이를 메었어요? 정말 그 넥타이를 뺄건가요? 내가 당신의 입장에 있다면 다른 신발을 신겠어.” 당신은 남편이 하자는 대로 따라가긴 하겠지만 여전히 잔소리 할것입니다. “여보, 저녁에 같이 나가서 식사할까 생각중이야.” “오, 따라 갈지 안할지 모르겠어요.” 당신이 잔소리 해서 당신 남편이 결정하지 않고 지나가게 하지마세요.

Now, somewhere someone has to give. You have to break this routine that is driving you and tearing you apart. You have got to break the routine and someone has to give in. The husband has to begin to show more love to his wife. He has to cause her to really feel secure in that love. He has got to go ahead and just express his love, let her know that there is no one else and there will never be anyone else, that she is it for life, till death do us part, and he has no intention or desire for anybody else, she is it. As she begins to feel that security, then she will be able to be freer to allow him to do those things that he feels that he ought to do or wants to do.

이제 어느곳에서 누군가가 양보해야 합니다. 당신을 끌고가서 사이를 갈라 놓는 습관을 깨트려야 합니다. 남편들은 아내들에게 더 많은 사랑을 보여주기 시작 하십시오. 남편이 여자를 사랑하여 안정감을 갖게해야 합니다. 남편은 그의 사랑을 표현하여 다른 어떤 사람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것이며 죽음이 서로를 갈라 놓을때까지 다른 사람을 의도가 없으며 그 아내 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하십시오. 아내가 그러한 사랑의 안정감을 느낄때 그가 마땅히 해야할일들이나 하고싶은 일들을 자유롭게 하도록 버려둘것입니다.



And you can get the thing going the other direction until it becomes heaven on earth, as we are following now God's rules which takes into consideration the basic need of the husband as a man, and the basic need of the wife as a woman.

God is so smart. He has it all set out. And He puts it so simply, rather than, "Here are the fifty-five rules for a happy marriage." He knows you'd forget them. So He gives you one, but even we have difficulty with the one, don't we? We forget so readily.

당신은 그 일의 방향을 지상의 천국이 될때까지 다른 방향으로 바꿀수 있습니다. 그것은 남편은 남자로서의 기본적인 필요와 아내는 여자로서의 기본적 필요를 고려 하셔서 만드신 하나님의 규칙을 각자가 따를때 가능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주 민첩하신 분입니다. 그는 모든 것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는 "여기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해 55 가지의 규칙이 있다" 라고 하시지 않고 아주 간단하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당신이 그것들을 잊어버릴 것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당신에게 단 한 가지를 주셨는데 그런데 그 한 가지도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너무 잘 잊어버립니다.

"She ought to know I love her, I come home for dinner, after all." You know, there is something interesting about women, of course, that is why we are attracted to them. But I really don't think that you can tell your wife enough times that you love her. If when she first opens her eyes in the morning and you look over and you see her in bed, and you say, "Oh, Darling, you are beautiful. I love you."

"아내는 내가 그녀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모든것이 끝난후 저녁 식사하러 집에 옵니다." 여자들에게 재미있는 점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것 때문에 여자에게 매력을 느끼지만. 그러나 우리들은 아내를 사랑한다고 충분히 자주 사랑한단 말을 하지 않습니다. 아침에 그녀가 눈을 떠면 그녀가 침대에 누워있는것을 보고 "오, 여보, 당신은 아름답군요. 사랑해요."

Then as you are sitting across from her at the breakfast table and you just look into her eyes and say, "Sweetheart, I love you so much." Then as you kiss her goodbye and head off for work and you say, "I love you, Honey. See you later." Two or three times during the day you call up and she says, "Hi, what do you want?" "Oh, I just wanted to tell you, Honey, I love you, and I think you are great." Believe me, when you go to bed at night, you are going to hear the question, "Honey, do you love me?" Take a hint, fellows, they need assurance of love.

아침 식탁에서 마주 앉아서도 그녀의 눈을 보면서, "여보, 정말 사랑해요." 그리고는 작별 키스를 하고, 직장에 가면서도 "사랑해요, 여보. 나중에 봐요." 하루에 두세 번씩 전화를 하면, 그녀는 "웬 일이에요?" "오, 그냥 사랑한다는 말을 하고

싫어서요. 당신은 훌륭해요.” 믿으세요. 잠자리에 들때 그녀는 “여보, 날 사랑해요?” 하고 물을 것입니다. 남자들이여, 그들에게겐 사랑의 확신이 필요 하다는 것을 알아 차리세요.

Not just verbal. Love is demonstrated in its actions and love is demonstrated in its giving. Love your wives as Christ loved the church and gave Himself for it. Giving of yourself to her, showing your love in your giving yourself to her. The rules for a happy home.

말로만이 아니고 사랑은 행동으로 보여 줘야 하고 주는 것으로 보여 줘야 합니다.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 같이 하라. 당신 자신을 그녀에게 주고, 그녀에게 당신 자신을 줌으로써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세요. 이것들이 행복한 가정을 위한 규칙들입니다

Paul goes on and draws on this illustration of Christ and the church as an illustration, really, of the perfect marital kind of a relationship. He gave Himself for the church

*That he might set it apart and cleans it with the washing of the water by the word, that he might present it to himself a glorious church (5:26-27),*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이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5:26-27)

You know, the wife who is smothered with love will just blossom forth so beautifully. As we blossom forth in the love of Jesus, the purpose is that He might present to Himself a glorious church,

당신도 알다시피 사랑으로 덮여진 부인은 아주 아름다운 꽃을 피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꽃을 피울때, 그 목적은 주께서 자신을 영광스러운 교회에 주시는 것입니다.

*without spot or blemish, or wrinkle, or any such thing; So ought men to love their wives as their own bodies. He that loves his wife [is really doing himself a favor, he] is loving himself (5:27-28).*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5:27-28)

You are the one who is going to benefit from your showing your love to your wife.

당신의 아내에게 당신의 사랑을 보임으로 유익하게 되는 사람은 당신 자신입니다.

*For we are members of his body, of his flesh and of his bones. And for this cause shall a man leave his father and mother, and shall be joined unto his wife, and they two shall become one flesh. It is a great mystery: but I am speaking [Paul said] concerning Christ and the church. Nevertheless, let every one of you in particular so love his wife even as himself; and the wife see that she reverence her husband (5:30-33).*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느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5:30-33)

So relationships, submitting ourselves to one another, wives submitting to their husbands, husbands loving their wives supremely.

그래서 결혼의 관계는 피차 복종하며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지극히 사랑하는 것입니다.